

친족에 의한 성폭행, 전체의 16.7%

‘가정사’ 인식 깨고 사법적 대응책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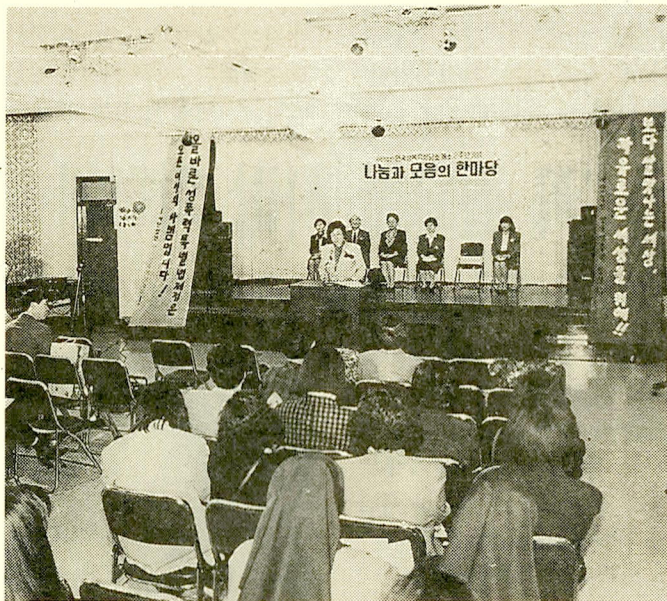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서 밝혀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집이 나와 실태 파악과 대응책 모색이 촉구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개소 2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이 자료집에 따르면 총 1천2백60건 중 친족 성폭력이 1백10건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 가족 내에서 친부, 시부, 의양부, 형제, 아들에 의한 성폭력이 1백3건으로 48.1%였다.

피해자의 직업은 학생이 1백14명으로 53.3%, 미취학 아동이 12.1%, 주부가 7%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은 8~13세 44.4%, 14~19세 24.3%로 피해자가 미성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은 ‘친족상간’이란 통념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동시에 친족성폭력을 ‘가정사’로 덮여버릴 것이 아니라 사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 2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기념자료집을 발간했다.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52.8%)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특히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62.9%)가, 그 원인은 주변인이 몰랐기 때문에(46.9%), 주변인의 방치로(15.9%), 보호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14.2%), 무마(10%)하려 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 협박(12.5%)했다.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대부분 성기의 이상(자궁이 돌아가거나 질이 늘어남)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며 성관계를 거부했을 경우 단순 구타를 넘어 망치나 막대기 등으로 구타당하는 심한 상해와 함께 깊은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된다.

친족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친족’에 의한 것도 심각한 성폭력이라는 인식전환, 피해사실을 즉시 경찰서나 어린이 보호시설에 신고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마련,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마련,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 등을 제안했다.

〈김명순 기자〉

● 우리의 생각 ●

고령화 사회에 대처 지금 해도 늦다

5월은 가족의 달이다. 1년중 그 어느 때도 가족이 중하지 않은 때가 없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나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평소에 너무도 밀접해서 그냥 건성으로 지나치기 쉬운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8일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우리는 노인문제를 이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책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2천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60%를 점할 것이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적인 배려라는 것은 경로우대증 발급, 공원 무료 입장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정신적인

열 글 들

매주 1회 여성문제 사설 집필 제10회 최은희 기자상 수상